

2025년 중앙도서관 방문기

오늘의 도서관

1부

도서관에서의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1부

발행 | 2025년 11월

저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이용자

기획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비매품

본 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의

2025년 읽·걸·쓰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도서입니다.

© 오늘의 도서관 1부 2025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1부 도서관에서의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목 차

오늘의 도서관 안내		6
도서관에서의 오늘		9

오늘의
도서관
안 내

우리들의 중앙도서관 방문기

우리는 도서관에 방문해서 읽고 싶던 책을 빌리고, 열람실에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맘껏 보낼 수 있는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같은 공간이지만 저마다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방문기를 모아 제작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방문기가 도서관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며 도서관 방문에 새로운 활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중앙도서관

도서관에서의

오

늘

Q. 도서관에서의 오늘은 어땠나요?

이용자1

집에 있기엔 날이 더워서 도서관에 왔다. 우연히 자료실을 둘러보다가 읽고 싶었던 책을 발견했다. 뜨거운 햇빛과 숨 막히는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볼거리도 많은 도서관에 올 수 있어서 행운을 만난 것 같다.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도서관에서의 오늘은 행복하다.

이용자2

요새 대학생이 된 후 첫 방학을 맞아 집에서 숨만 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할 거리를 챙겨 오랜만에 중앙도서관에 왔다. 입시 공부를 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자주 뵈던 아저씨와 사서분을 뵈니 반가웠다. 간만에 예전에 열심히 공부하던 느낌을 되살렸다.

이용자3

횃수를 셀 수 없는 수 은 숫자의 나열 속에서 도서관의 오늘만은 아름다웠습니다. 무자비한 천부의 열기를 피해 지친 나그네의 보금자리는 역시 책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 고요하게 흘러만 가던 수많은 지식을 쌓아봅니다. 이곳에서 태양이 지는 것을 보는 것도 비극한 몸의 특권이지요. 아아. 그렇습니다. 갈 곳은 없는 필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한 편의 글을 보며 달래봅니다.

이용자4

시험 공부를 하려고 친구랑 만나서 도서관에 왔다. 오는 동안 너무 더웠지만 들어오니 시원하다. 지하에는 쉬는 곳이나 음식도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사람이 많아도 앉을 수 있게 자리가 많았다.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가 배고프면 지하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이용자5

중간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아서 도서관에 왔다. 스터디 카페를 갈까 고민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야 하고 오래 있지 못해서 밑에 매점도 있는 중앙도서관으로 왔다. 여기는 돈도 안내도 되는데 책도 읽을 수 있다! 진짜 너무 좋다. 매년 와야지.

이용자6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도서관에 같이 왔는데 시원해서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용자7

내가 사는 인천이 좋은 이유 첫 번째인 중앙도서관 8살 시절 엄마와 함께 와서 대출증을 만든 후 서른 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 침대 시절도, 지금도 현실에서 숨고 싶을 때면 도서관에 와서 책장 사이로 숨는다. 든든하다. 무기가 방패가 되어 줄 책 한 권 들고 다시 현실로 향한다. 지더라도 안전 가옥이 있으니 몇 번이고 다시 나선다.

이용자8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집에만 있자니 공부도 안 하고 계속 휴대폰만 잡고 있는 것 같아 방학 동안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도착해 주변을 살펴보니 이른 시간이어도 사람들이 꽤 보였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누구는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누구는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꿈나라로 빠져 있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시원한 도서관의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용자9

주말마다 딸과 함께 중앙도서관에 온 지도 몇 년이 되었다. 어느새 딸도 도서관이 집처럼 편안해 보였고, 글감이 많은 책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과 ‘혐오’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서 읽었는데 이 내용도 언젠가는 딸에게 소개해 줄 생각에 기대도 되었다. 딸과 함께 지식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늘 감사하다.

이용자10

인천에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도서관은 너무나도 감사한 곳이니 오늘도 소중히 쓰고 간다.

이용자11

찾고 싶었던 자료가 있어서 집에서 거리가 멀지만, 도서관에 와서 도움이 되는 자료도 얻었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 보면서, 학창 시절 때 자주 왔던 중앙도서관에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네 시간이나 앉아 있는 내 모습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원하고 조용하고 너무 좋은 도서관이었다.

이용자12

오늘은 8월 1일. 새로운 달이 열리는 날이니만큼, 새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보고자 도서관에 왔다. 조금 멀리 온 것 같아 후회하려던 찰나, 너무 쾌적해진 도서관에 놀랐다. 오랜만에 집중이 아주 잘 된 것 같다. 같이 공부하자고 해준 친구에게 몹시 고맙다. 친구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공부하니, 마치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 팬스레 기분이 상큼해진다.

이용자13

직장 때문에 평일은 방문할 수 없지만. 주말엔 자주 방문하고. 오늘은 그날 중 하루인 토요일이다. 은퇴 후를 설계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 속에 있으니, 그들의 면학 분위기 덕분에 독려받게 된다. 나이 들어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면서 생각과 의지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다.

이용자14

방학인데 집에서만 뒹굴뒹굴거려서 엄마를 따라 중앙 도서관에 왔다. 좀 오랜만에 와서 설레고 조금은 긴장했지만 3층에서 차분히 내 할 일을 하고 목표했던 걸 조금씩 이뤄가니 뿌듯하고 이곳에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 되버렸다. 조금 힘들면 지하에 가서 당 충전도 하고 집중이 안되면 4층에 올라가 걷고, 오늘날만큼 보람찬 하루가 어디 있을까. 이젠 알았으니 매주 도서관에 오며 열심히 열정적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용자15

도서관의 나 자신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군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되
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성찰이 되어서 참으로 좋네요.

이용자16

이곳은 피난처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도달하는
고요한 안식처. 이곳으로 모두가 온다. 살기 위해, 쉬기
위해, 배우기 위해. 도서관은 이 모든 이를 품는다. 누
구인지 묻지 않고, 오고자 하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 도서관은 공공 예술의 전당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시민의 정신과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루다.

이용자17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네) 혹시
후회하고 있진 않나요(당연히 후회하죠) 오늘은 열람실
에서 슬기로운 읽견쓰 생활 중 읽고 생각 쑥쑥 견고 몸
도 쑥쑥 크고 마음 쑥쑥 중 책으로 나와 세계를 이어주
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여행 중. 곧 떠납니다. 중
국으로 빨리 다문화 체험존에 탑승하세요. 출발~

이용자18

책을 고르다 책 속에서의 선생님을 만나서 헌법에 대한 것도 배우고 행복하게 있다가 갑니다.

이용자19

무더위 땡볕에서 모두들 일터로 향하고 나 혼자만 남아 있는 텅 빈 집. 지구 환경 위기가 심각하다는 마스크의 울림은 우리 집 에어컨 버튼을 누를 수 없다. 나 혼자인데, 그냥 지구를 살리기 위해 도서관으로 고고싱~ 약간의 간식을 챙겨서 시원한 피서지 도서관을 여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놀이터야.

이용자20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매우 쾌적해서 좋아요. 방학에는 도서관에서!! 여름 피서로는 도서관이 최고예요~!

이용자21

집에 가까이 있어 즐겨 방문하는 중앙도서관. 더위를 피해 온 도서관에서 평소 즐겨 읽는 장편 소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니 가슴의 뿌듯함을 오랜만에 느껴 보는 하루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서 훨씬 더 도서관의 면모가 보이는 것 같다.

이용자22

요즘처럼 ‘도서관의 소중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질문해봅니다. 적막이 흐르며 사람들의 집중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갈피를 못 잡는 나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과연 이보다 좋은 또 다른 낙원이 있을까. 설사 도서관의 시원함이 이유였다 하더라도 나의 순수함과 문장력 그리고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독서할 수 있어서, 독서의 묘미를 알게 되어서, 독서의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인천 시민들에게 안식처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신 중앙도서관 관리 담당자분들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이용자23

오늘의 도서관은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신간 코너를 둘러보며 관심 있는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출간한 소설책의 표지 디자인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책을 몇 권 빌려 갑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이용자24

이용자들에게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편의 제공, 직원들에게는 이용자와 소통하며 업무를 지원하는 소중한 공간 중앙도서관의 오늘!

이용자25

오늘 도서관은 조용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으로 나를 맞이해주었고, 나는 책이 가득한 책장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탁자에 앉아 여유롭게,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누렸다. 그동안의 분주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삶이었기에, 마음 깊이 기쁨이 밀려왔다.

이용자26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조용히 책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작지만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용자27

학창 시절 시험기간이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챙겨 중앙도서관으로 왔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킁킁거리며 언덕을 올라 도서관을 바라보면 벌써 뱀처럼 늘어선 줄에 놀라 털썩 주저앉았던 기억에 웃음이 지어진다.

정작 도서관에 들어오면 머리보다는 배부터 채울 마음에 후다닥 매점으로... 친구들이랑 먹었던 라면 맛은 잊을 수 없다.

오늘은 없어진 매점 대신 자리한 자판기에서 달달한 커피 한잔하고 열람실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28

중앙도서관에서 매일 새벽 6시 3층 창가 자리 앉아서 기술사 자격증 시험공부했던 즐거운 기억이 납니다. 올해 5월에 최종 합격을 했고, 중앙도서관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었던 행복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용자29

무더운 더위에도 시원하게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고, 열람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아이와 함께 책도 보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아이와 내가 한 팀이 되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와 아이의 생각을 맞춰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자30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로 읽고 빌리기가 편했습니다. 일반 열람실도 책을 읽거나 자료조사 등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음식을 가져와서 먹기에도 좋은 휴게공간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프로그램이 많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상영물도 보면서 심의 여유를 갖게 한다.

이용자31

도서관을 향하는 나의 마음은 ‘기대감’이다

디지털 시대에 도파민에 절어있는 나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조용하면서 뻑뻑한 문체의 종이 내음새가 가득한 곳. 채움을 위해 책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설레임이 시작되고 여유가 되어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성취감을 가진다. 어린이부터 중년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이 다양한 도서를 읽겠다는 목적으로 만나는 그 공간에 평온함이 힐링 된다.

이용자32

종합 열람실은 퇴직한 나의 새로운 학교이자 직장이다. 매일 아침 단정한 매무새로 배낭 매고 출근하면 나의 눈을 번뜩 뜨이게 하는 책들이 나를 반긴다. 가장 열렬한 환호를 하는 책 하나 골라들고, 바깥의 무더위와는 다른 세상인 열람석에서 펼쳐 들면 파도처럼 쏟아지는 신세계. 밥 먹는 것도 잊게 하는 책의 향연 속에서 나는 모범생이 된다. 직장처럼 6시 퇴근하게 하는 배꼽시계. 마음은 철야라도 하고픈데.....늘 아쉽다.

이용자33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이 매우 지쳐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에 와서 근처 베이글 맛집에서 맛있는 베이글도 먹고, 몇 시간 후 시원한 커피와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취업 관련 공부를 하었는데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취업 관련 공부를 하니 힘든 취업 준비 중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힐링 되는 경험을 한 날입니다. 다른 분들도 지쳤을 때는 예쁜 옷도 입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가끔 사 먹으며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자34

오늘은 도서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오랜만에 도시락 통까지 준비해 와서 지하에서 돌려먹으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사각거리는 필기 소리를 배경 삼아 다시 돌아가야겠다. 도서관의 모두가 행복하길!

이용자35

휴가 기간이어서 오랜만에 방문한 도서관. 쾌적하고 많은 장서에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으로 운영 바랍니다.

이용자36

비 오는 도서관의 오후는 차분하고 고요하다. 일반적인 날과는 다르게 사람도 적어서 조용한 열람실에서 비 오는 밖을 감상하기에는 딱이다. 책을 읽다가 컴퓨터로 내려가 잠시 쉬기도 하고 편안한 하루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룬 알찬 오늘을 보낸 것 같다.

이용자37

오늘은 책을 오랜만에 읽으려고 도서관에 왔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노트북으로 바쁘게 타이핑하는 사람,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 각자의 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책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면서 책을 한번 보고 사람들을 구경을 한 번 하고.. 오늘은 집중이 어려운 날인가 보다.

이용자38

아침 일찍 도서관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과제를 시작했다. 집에서는 게을러져서 미뤄두었던 과제를 도서관에 와서 시작하니 끝낼 수 있었다. 중간에 휴식도 하고 책도 보니 오늘 하루는 잘 마무리된 것 같다.

이용자39

밖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쬘고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 냄새와 함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서 마치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다. 도서관에 잠깐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신기했다.

이용자40

도서관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으러 왔다가 읽고 싶었던 책을 찾았다. 막상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없다가 과제를 하려고 하니까 읽고 싶은 책이 마구 보인다. 어쨌든 보고 싶은 책을 행운처럼 발견했으니 좋은 하루인 것 같다.

이용자41

여름휴가로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도서관은 여러 전 시도 하고 공간도 환해져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쉬면서 놀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고 갑니다.

이용자42

무더위를 뚫고 도착한 도서관은 시원해서 좋다. 땀을 식히면서 조용히 읽는 책을 읽으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기분이다. 거창하진 않아도 나만의 피서지는 언제나 도서관이다.

이용자43

매일 들르는 도서관이지만 매일 같은 모습의 도서관은 아닌 것 같다. 날마다 바뀌는 전시와 새로 들어오는 책과 때마다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언제나 활기차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매일 도서관에 오는 것 같다.

이용자44

도서관에 오랜만에 방문하는데 이곳저곳이 달라져 있어서 놀랐다. 도서관에 온 김에 책도 빌리고 구경도 하고 앞에 카페나 식당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야겠다.

이용자45

도서관에 아무 생각없이 왔는데, 막상 와서 ‘오늘은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이라서 심심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서관에 왔는데 와서 해야 할 것을 찾아봐야겠다. 그래도 나왔으니, 뭔가를 해낸 하루가 될 것 같다.

이용자46

조용한 열람실에 이런 코너가 생겨서 신기해서 쓰고 있다. 도서관에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서 재밌고 색다르다.

이용자47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왔는데 각자 보고 싶은 책을 찾느라 흩어졌다. 오랜만에 왔으니, 책을 많이 빌려서 가야겠다. 다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빌린 것만으로 뿌듯한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용자48

어릴 때는 부모님과 도서관에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일로 가기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래도 오랜만에 도서관에 오니, 미뤘던 일을 해치운 기분이다. 오랜만에 왔으니 좀 쉬다가 책도 읽다가 가야겠다.

이용자49

최근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는데 차분한 도서관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늘 도서관에서의 하루는 그동안 바쁘고 번잡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편안히 쉬고 가고 싶다.

이용자50

보통 중앙도서관은 공부하거나 책 빌리러 종종 방문하곤 했는데 이런 코너가 생겨서 신기하다. 날이 더워서 시원한 도서관에 왔으니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 같다. 나가기 두려워하지만 언젠가는 나가야겠지. 더운 오날이지만 그래도 가을은 언젠가 오니까 올해 가을이 더 더욱 기다려진다.